

## SK케미칼, 판교 연구소 기공

SK케미칼은 9월9일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연구소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손관호 SK건설 부회장, 손순구 성남시 국장을 비롯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SK케미칼은 판교테크노밸리의 토지 6230㎡(1885평)에 지하 5층, 지상 9층, 연면적 4만7542㎡(1만4381평)의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며 2010년 4월 말 준공 예정이다.

SK케미칼이 최고 수준의 친환경 건축물 신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기술을 적용해 건축하는 신축 건물은 기존 업무용 건물 대비 에너지 및 수자원 절감률이 최대 50%에 달한다.

친환경건축물의 평가 척도인 친환경건축물인증제(GBCC) 예비인증에서도 제도 실시 이후 사상 최고 점수인 113점(만점 136점)을 획득해 친환경 측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친환경 건축물 신축을 통해 R&D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글로벌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8/09/09>